

(실재하는) 자아에 대한 깨달음 vs 다른 깨달음들 동영상 설명: 신은 어디에 있나요?

번역:치르치르님

신적 자아(I Am 현존)는 무엇인가요? 2021 년 6 월 6 일, (역주:천주교 계통의 모 임)이란 단체에 주어진 강론에서 피터 마운트 샤프스타는 신적 자아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느냐에 대하여 말합니다. 'I Am'확언을 할 때 그 '나'는 과연 누구인가? 또한, 확인 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예고를 약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질문과 답이 이어집니다.

샤프스타: 모두 만나뵈서 반갑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제 마음으로 느낍니다. 특히 낸시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군요. 라는 멋진 곡을 골라주었어요. 노래 제목이 딱 강론 제목이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낸시, 노래 선택 정말 좋습니다. '고요하라, 그러면 내가 신임을 알리라...' 물론 여러분은 질문이 떠오겠죠. 누가 이 말을 하는거지? 구름위에 앉아 있는 전지전능한 신의 말씀인가? 긴 하얀 수염을 내려 뜨린 채 '고요해 지거라 그러면 내가 신임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엄하고 무서운 부모님처럼?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신임을 알라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건낼 수 있는 내면의 말인가?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 자신이 신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그런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문제는 이 '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 친구인 람다스(Ramdas)이야기를 할게요. 잘 아시다시피, 그는 많은 서양의 젊은이들을 동양의 신비주의로 이끈 사람이죠. 람다스의 형이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어느 날 람다스가 병원으로 그를 보러 갔어요. 형이 입원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예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 날, 형은 람다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 너나 나나 똑같은 말을 하잖니, 나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너도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 그런데 왜 사람들은 너는 숭배하고 나는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야?" 람다스는 대답하길, "형, 거기엔 좀 차이가 있어, 형은 자신이 역사상의 그 예수님(the Christ)이라고 말하는 거고 나는 우리 모두가 예수와 같은 사람, 예수처럼 될 수 있는 사람(a Christ)이라고 말하는 거지."

저는 람다스의 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계시다고 말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되시죠,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좀 제껴 버렸지만 ... 우리가 이제 새로 선언하면 됩니다. 신은 아버지 어머니 양자이시죠, 우리가 I AM 확언을 하면서 '나(I)'를 말할 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신과 주파수를 맞춥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신이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였어요. 사실 이 지구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별까지도요. 하나의 존재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신의 현존을 갖고 있기에 그것이 가능한 거지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지요. 제 뒤의 벽에 걸린 이 그림을 보세요. '1AM 현존'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이쯤해서 지난 번 우리들의 모임에서 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요. 세인트 저메인 대사가 저를 펄(Pearl)스승님에게 보낸 이야기를 했었죠. 그건 세인트 저메인님이 뉘어(Muir) 숲에서 제 앞에 육화되어 나타나서 제게 지시한 거죠. 펄은 나도 신적 자아를 갖고 있다고 내게 말해주었어요. 우리의 신적 자아는 대략 우리 머리 위 15 미터정도에 존재하는데, 신이 우리의 모든 생각, 말, 느낌, 소망을 듣는 통로입니다. 신적 자아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신성한 계획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너의 신과 나의 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손에 붙어있는 손가락 관계같은 것입니다. 이 손가락(오른손의 두번째)이 피터인데 이 손가락(왼손의 두번째)도 피터입니다. 둘 중 어떤 것이 피터냐고 서로 싸우지 않죠. 둘은 서로 만나고 있고, 신적 자아로부터 인도받은 피터가 다른 피터를 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신의 손가락이라고 상상합시다, 우리가 주의를 내면으로 돌릴 때, 우리는 신의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바로 신이니까요. 여러분이 통째로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주의 구슬같은 것입니다. 한 구슬이 내가 바로 목주야.. 한다면 다른 구슬이 맘이 상하겠죠. 목주의 구슬들을 이어주는 끈은 하나지만 많은 구슬들을 꿰어줍니다.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의식은 모든 의식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신성이 육화된 존재인 우리 모두를 연결해줍니다. 요한이 우리는 모두 사제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면서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우리의 본질인 신성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가슴을 관통하여 흐르는 그 본질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성모 마리아, 엘리야, 모세를 비롯한 모든 위대한 성인과 선지자들도 동일한 신성의식을 지닙니다. 이 신성의식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신적 현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할게요 기본적으로 빛의 구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곱 색으로 둘러 쌓여 있어요. 그 빛의 구로부터 관(tube)을 통해 찬란한 빛이 내려옵니다. 밀교적 문헌에서는 은빛 줄로 묘사되었죠. 은빛 줄은 우리의 마음에 닿을 내립니다. 물론 물리적 심장이 아니며 흉골 아래로 살짝 오른 쪽 위치라고 생각하세요. 인도에서는 그 신성한 불꽃을 조티(jyoti)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살짝 두들기면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저의 스승 중 한 사람이었던 트풍파 린포체는 그곳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아주 부드러운 지점이라고 했어요. 가장 상처받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신의 불꽃이 닳을 내린 곳이니깐요. 저는 그것이 마치 가스 스토브의 점화용 불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타고 있지요. 그리고, 비유적으로, 가스 스토브의 다른 버너를 점화시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여러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아요. 점화용 불꽃으로 스토브에 불이 붙듯이 우리가 신의 현존을 느끼면서 자각할 때, 우리는 모든 버너, 즉 우리의 모든 차크라가 환히 타오른다고 말할 수 있겠죠 버너가 폭발하듯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상승의 사건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의 물리적 신체를 완전히 용해시키는 것이죠. 신적 자아는 빛의 튜브를 내려보내는데 실제로는 그 중간에 다른 신체가 있어 그것을 통과하여 우리의 물리적 신체에 닳을 내립니다. 물리적 신체와 신적 자아 사이의 한 중간에 그리스도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신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신이며 완전한 의식이자 지복 자체이며 어떠한 개체성도 전혀 없는 전체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자아는 아버지 어머니 신을 인식하지만 동시에 인간 자아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 자아는 다 다른 물리적 신체를 가진 우리 한사람 한 사람과 우리들의 인생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이원성의 세계인 이 세상을 실험실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오는 곳이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빛으로 창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배웁니다. 어떤 때는 그 결과가 불쾌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음, 실수를 했구나” 합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여러분은 고백성사를 하고 신부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거주하는 신께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신께 용서를 요청합니다

이 상황을 치유해주시고 제가 상처 입힌 사람들 또한 치유해주세요” 라고요. 요한이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사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특히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능력말입니다. 따라서 낸시가 부른 라는 노래처럼, 우리는 내면에서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게 고요해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와 신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를 하니깐요. 마음은 이렇게 떠들겠죠. ‘난 신이 아니라구! 내가 신이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착착 일어나게 할꺼야, 그러면 난 미친 듯이 행복할 텐데.. 그러니 내가 신일리가 없지!’ 우리 마음은 딱 이런식으로 휘방을 놓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느님을 불렀죠. 하느님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아무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우선 당신의 핸드폰부터 끄라고요. 여러분의 주의가 어디에 집중되느냐는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집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세상적인 것들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것들 속에 파묻혀있는 것입니다.

핸폰을 침대 곁에 두고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새 메시지부터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 즉시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예고와 결합한 마음은 '오늘 그거 꼭 해야지, 음 저건 생각만 해도 화나는군, 아, 어제 그 일은 해결해야 했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하루도 이런식으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핸드폰을 열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이 TV 뉴스를 켜고 재앙 관련 뉴스를 보게 된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은 뉴스에서 본 재앙에 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신을 느끼길 기대하지요? 예고적 마음이 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따로내어 명상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제가 기쁠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보석같은 것을 드릴 수 있게 된다면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론도 정말 간단합니다. 물론 실천은 어렵지요. 단체의 어떤 분이 누워서 꼼짝 못한채 천장의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이지요. 며칠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TV 에서 CNN 을 보고 있는데, 래리 킹(미국의 유명한 뉴스쇼 호스트)이 나와서 명상 클래스 참여 경험을 말하더군요. 명상 선생님이 호흡에 집중하라고 했고 들숨과 날숨에 겨우 열 번 정도 집중했는데 마음이 고요해졌다고요. 그리고 보니,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이 생각 나네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화부터 내지 말고 일단 열을 세라고요. 저라면 일단 호흡을 열 번 주시하라고 하겠어요. 들숨과 날숨을 열 번 주시하는 동안 마음은 가라앉고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신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은 내가 정말 원하는 반응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예고적 마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신적 현존에서 나오는 행동을 할 것인지 여러분이 이 수행을 더 연습할수록 여러분의 신적 자아는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신의 현존과 합일할 경우, 그것이 바로 승천이며 상승입니다. 지난 주 여러분은 성경 수업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세 제자를 산으로 데리고 온 후 예수님은 (에테르체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으로부터 내려왔고 그런 후 그들은 다시 비물질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제자들은 '이게 다 뭔일이래?' 했죠. 물론 그렇게 똑같이 말하진 않았겠지만요. 어쨌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단 나는 아버지께 갈 거야. 너희들은 그 후에는 말 할 수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몇백년 더 앞섰지요. 제가 아는 중국의 한 스승님은 그의 스승님이 상승할 때 곁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의 빛이 겹겹으로 반짝이며 찬란히 빛을 비추이더니 스승님의 물리적 신체는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걱정하진 마세요. 여러분이 명상 할 때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이 명상을 하게 되면 기쁨, 행복감, 평화, 그리고 평온을 느끼게 됩니다. 명상을 할수록,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지며 신적 자아를 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호흡을 주시할 때 잡생각이 떠올라 간섭을 하면 그저 생각이란 딱지를 붙이세요. '저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라고 말하며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점 점 더 고요해지는 가운데 여러분은 내면을 주시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나 일들이 계속 떠올라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들을 잘 관찰해보세요.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이 오는지를 알아차려보세요. 일단 여러분의 마음이 비파사나(호흡) 수행을 통해 고요해지면 여러분은 소위 '자아 탐구'라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이다'라고 I Am 확언을 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결국 명상의 전 과정은 '자아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상인거지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보다 '나는 무엇인가?'가 더 적절할 것 같군요. 무엇이 나의 생각을 지켜보고 있는가? 잡다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응시할 수 뿐이 없는 것 처럼요.**

사실 그것은 매우 높은 명상 기술입니다. 명상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은 날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큰 진보가 될 것입니다. 음.. 그 집중에서 답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지요. 고요함을 통해 그 고요함 속으로 신의 현존(신적 자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답을 줍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진정으로 우리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음을 고요히 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말했는데요. 아마도 앞부분을 지나쳐 갑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그런 오고 가는 생각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관찰자'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에고 너머의 관찰자가 에고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순간 모두 관찰자를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 내가 정말 제 정신이 아니군, 그치만 막 화가 나는 걸 어찌라구.'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화를 내고 난 후 다시 돌아가서 사과를 하게 되면, '아, 그 때 조금만 참을 걸' '그 때 대화하는 나 자신을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을텐데'하고 후회하죠. 이처럼 나를 관찰자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누구인가?' 또는 'I'에 대해서 명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빛의 축으로 옮겨 곧장 신적 자아를 향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연후, 우리는 'I Am 확언'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현현시키는 신성의 창조적인 어머니 부분을 불러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제로 '나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현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정수, 나의 본질은 선함입니다.' 이처럼 '나는

선한 사람이다'에 대해 명상하는 것입니다. 2 개월정도 된 아기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볼 때 그 순수한 선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2 개월 된 아기였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본질적인 선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신의 현존임을 압니다. 자, 이제 명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집중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아드바이타'라고 불리는 것인데, '하나임(불이)'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죠. 수행자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저는 샤페르 산과 다른 장소에서 하나됨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은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하나됨은 성취한다해도 포인트가 빛나간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원성의 세계이니깐요 또한, 이 세계 안의 모든 다른 사람들도 신이 육화된 존재이니깐요. 마스터의 진정한 성취는 신과의 합일된 의식에 머무름과 동시에 우리의 의식안에서 타인을 느끼고 그들과 관계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따라서, 자비를 배우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만약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자비로와 질 필요도 없겠지요. 우리가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그들이 내 성질을 건드린다거나 또는 슬퍼진다거나, 유감스럽다거나, 후회스럽다거나, 어떤 감정이건 간에,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 상대방 역시 우리의 한 부분임을 느끼세요. 길가에서 만난 노숙자들도 여러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 현존과 신적 자아(I Am 현존)를 갖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들 나름의 신적 자아를 갖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신적 자아와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처지에 우리는 자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수행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음.. 일종의 탄트라 수행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성적 탄트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트라'라는 말은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또는 끊어지지 않은 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닦는 것조차도 혀를 사용한 수행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예수의 이를 닦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모든 행동이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성사 수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의념으로 와인과 빵 또는 성체용 밀병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나의 온 몸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 안에 그리스도의 현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존중하며 잘 대우하며, 나의 치아와 나의 건강을 잘 돌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내가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탄트라는 우리를 연결해 주는, 끊어지지 않는 의식의 실을 뜻합니다. 이것이 내가 만난 아토스 산의 수도사들이 한 수행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예수로 심상화한 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모든 곳으로 퍼질지어다! 따라서 그들이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내 안에 있으며 네 안에 있으며 모든 이와 함께 합니다. 저는 이 수도사분들은 정말 완전히 축복받은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들은 깨달음 보다 더 수승한 경지에 이른 것이죠. 그들은 자비를 성취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묵주 기도를 암송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모마리아 그림이나 동상을 응시할 때 실제로 성모마리아의 신성과 하나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에서 성모 마리아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탄트라입니다.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죠. 분리감이 전혀 없는 하나된 의식입니다. 이런 수행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고대 인도와 티벳에서 행해졌어요. 그들은 신의 특정한 측면을 심상화한 후 그 존재를 점점 더 실재적으로 의식합니다. 음.. 저는 '상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존재가 여러분의 바로 앞에 있다고 상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님, 제게로 오셔서 제 앞에 나타나주세요. 당신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요.' 그리고는 그 분이 앞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자, 애니카(샤스타님의 제자이자 친구)가 성모마리아 상을 산 이야기를 할께요. 성모 상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밖에 앉아 있었죠. 나는 '오, 성모 마리아 상이 또 왔군' 했죠.

매일 매일 애니카는 성모상 발 밑에 꽃을 가져다 놓았어요. 화환도요. 그리고 가끔 성모 상을 씻기기도 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소중히 다루었죠. 그렇게 한 동안 지난 후, 나는 실제로 성모 마리아님이 느껴졌어요.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축복을 받았죠. 이런 것이 탄트라 수행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를 더욱 더 실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눈 앞에서 성모 마리아를 본다고 실제로 상상한 후 눈을 감고 여러분과 성모님이 하나됨을 상상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세요. '마리아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소서.' 그런 느낌이 강해질 때, 이렇게 확인하세요. '나는 신성한 어머니입니다.' '나는 거룩한 어머니입니다.' '나는 모든 이를 용서하는 자비심으로 가득한 어머니입니다.' '나는 모든 이를 용서하는 자비심 가득한 거룩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자, 이 수행은 여러분이 (역사상의) 성모마리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인 마리아, 한 사람인 어머니, 한 사람인 신성한 어머니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성의 아버지, 신성의 어머니가 육화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성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신성의 어머니 측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신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함께 옵니다.

우리의 신적 자아(I AM 현존)는 완전하게 양자를 다 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지금과 같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십자가는 처형하는 도구였지요. 십자가의 신성한 상징은 수평과 수직이 같은 길이로 완성됩니다. 수직의 막대는 'I', 아버지적 측면, 의지적 측면을 말하며 수평의 막대는 'AM',

어머니적 측면, 사랑, 보살핌으로 무엇인가를 현현시키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가 하는 'I AM' 확인은 아버지 어머니 신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신적 자아(I AM)가 있기 한참 전에 존재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안에, 의식의 거대한 바다안에, 신의 현존의 의식 안에 있었습니다. 그곳엔 이원성이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빛과 의식, 그리고 지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체로서 나타나고자 했을 때 이원성이 시작되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공간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바, 공간이라는 옷을 입은 것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제약없는 무한의 존재였습니다. 여성도, 남성도, 위도, 아래도, 왼쪽도, 오른쪽도, 선도, 악도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저 아래 지구로 내려와서 좀 빈둥거리기로 했고 이원성이란 것을 경험하기로 했던 것이죠. 따라서, 다시 신성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이원성의 세계에 있고 나는 나의 행위의 결과를 배우는 중입니다. 나는 더 선하고, 더 자비롭고, 더 애타적이고, 신성의식으로 더 채워진 존재가 되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명상 끝에 여러분이 심상화한 신성과의 합일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람다스의 형처럼 머리가 이상해 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예수를 경험한 후, 자신이 예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연극에서 대천사 미카엘 역을 맡았는데, 그는 내면에서 대천사 미카엘이 온 것을 느꼈어요. 그런 상태로 며칠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이 대천사 미카엘의 환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또, 어느 여름, 샤스타 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세 여자가 제게 오더니, 아주 확신에 가득찬 목소리로, 자신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환생이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을 그들의 내면에서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경험을 흘려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에 집착한 채 자신들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지요.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은 그 경험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나는 신적 자아이지만 동시에 나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정신병원에는 아마도 많은 높은 존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예수 또는 성모 마리아로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자신의 환자 중 세명이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마 미시건 주였던 것 같네요.. 그 세 사람이 모두 자신을 예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세 사람을 한 곳에 불러들여 서로를 만나게 하면 어쨌을까를 생각했지요. 그래서 한 방을 같이 쓰게 하면, 그들은 세명이 모두 예수일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는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 의사는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한 달 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사람은 각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그들 세 사람은 여전히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로 남아 있게 된 거죠. 책의 제목이 입니다. 이제 탄트라 수행의 마무리에서 당신이 심상화한 신적인 대상을 흘려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아셨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명상의 수단으로 자신을 성모 마리아나 예수로 심상화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신적 현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질문자(로렌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당신은 이제까지 많은 수행을 경험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수행을 점점 더 단순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셨죠. 오늘은 심상화의 중요성과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들과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순한 수행이 어떻게 조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샤스타: 네, 우선 저는 호흡을 관찰하는 비파사나 명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비파사나를 오랜 시간 해온 덕분인지, 어느 시점부터는 그 명상을 오래 하지 않아도 쉽게 잡념이 없는 의식 상태로 곧장 들어가더군요. 물론 잡념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생각이 가끔 떠오르긴 합니다만, 저는 그 생각을 보며 관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모두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요. 그렇게 되면 생각은 걱정과 화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요. 그러나 나 자신을 상위 자아와 동일시함으로써 나는 내 밖에서 내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 나의 밖이라기보다 생각을 나로부터 분리된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죠. 저는 또 다른 수행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이트 타라(순백의 여신)' 명상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성의 어머니를 심상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식 수행에 익숙하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영적으로) 성장한 배경과 달라서지요. 저는 주로 인도와 티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아무데도 소속이 없어요. 수행자들은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자유롭죠. 화이트 타라 명상의 경우, 만트라가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묵주기도를 해도 좋고, 내가 하는 'I AM' 확언을 할 수 있어요. 일단 합일의 의식 상태로 들어가면, 음... 신적 자아와 완전한 합일이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신과 상당히 연결된 느낌의 상태로 들어가면, 나는 확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선함을 느낍니다.' '나는 선합니다.' 또는 '나는 신성의 계획에 따라서 나의 하루를 이끕니다.' 또 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느끼려고 의식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어떤 이미지를 볼수도 있겠죠. 이 주제는 어쩌면 다음달 강론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적 안내를 받느냐는 것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주제입니다. 신은 매우 실용적이십니다. 신은 우리의 삶을 쉽고 편하게 해 주시려 합니다. 신은 이렇게 말하지요. '네 방식대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거라, 그게 좋다면 말이지, 난 항상 여기 있을거야, 네가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또 다른게 신의 방식을 배울 수 있죠. 그것은 행복(에고의 포기)의 개념을 통해 옵니다. 이건 또 다른 큰 주제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순종이나 행복을 받아들이길 어려워 합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해?' '내가 왜 누군가에게 절을 해야 해?' '내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해?' 이런 식이죠. 음.. 나는 인도에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티벳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두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엎드려 절하는

오체투지를 하더군요. 저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하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제가 해보니 정말 좋더군요. 그건 마치 어떤 것, 나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죠. 아, 제가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네요. 어쨌거나, 전 인도에서 코코넛을 땅에 던져서 부셔버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거대한 조각으로 된 신상의 발치에서 그렇게 하더군요. 그 곳은 배 고피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코코넛을 땅에 던져 먹지도 못하게 할 수 있죠?”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오! 코코넛은 나의 에고입니다. 그러니, 나의 에고를 신에게 바치면서 동시에 신의 발치에서 코코넛을 던져 부셔버리는 거지요”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와우! 나도 할 거야” 하며 나가서 코코넛을 사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 행위가 나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고 꼭 말하고 싶어요.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것은 바로 나의 에고였다는 깨달음이 온 것이죠. 나는 신에게 나의 에고를 항복시키고 땅에다 에고를 짓이겨 버렸어요. 그리곤 내 갈 길을 갔지요. 마찬가지로 코코넛을 부신 것이나 여러분이 성당에 가서 하는 행동은 겉모습은 달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성당에 들어서면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요. 저는 상황 상황에 따라 많은 다양한 수행을 합니다. 산스크리트 찬송을 하기도 하고요. 인류를 위해 기도도 하지요. 그러나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 4 시 같아요. 인도에서는 브라마 무흐르타, 신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아직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지요. 여러분이 고요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정수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새벽 4 시에 일어나는 편입니다. 명상을 한 후 다시 잘 수도 있지만, 저는 주로, I AM 확언을 하고, 인류를 위해 기도를 하고, 각 국의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문자(조아나): 다음에 우리에게 강론해 주실 때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참고해주셨으면 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신에게 말을 건네지만, 명상할 때에는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샤스타님이 동의하며 활짝 웃음~) 저는 휘출족의 샤먼과 일을 같이 했었어요. 멕시코에 있는 부족이죠.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바로 일상의 삶이라는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예술을 하면 그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또한 음식을 준비하면 바로 그것이 종교적 행위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종교적 행위 사이에 전혀 분리가 없어요. 교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24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삶의 행동 하나 하나가 다 종교적 수행이니까요. 샤스타: 조아나, 멋진 이야기를 공유해주어서 고마워요. 저도 샤스타 산에 사는 한 여성을 알아요. 혈통의 반이 휘초 인디언인데 어머니는 휘초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이든 어머니를 혼자 돌볼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샤스타 산에서 휘출족과 같이 사는 친척집으로 갔어요. 휘출족은 세상 만물이 살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식있는 존재로 대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로를 존중과 경의로 대하지요. 그들은 신은 모든 곳에, 모든 것에 편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사실, 그들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잠시 서서, 네 방위에다가 축복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그렇게 해봤어요. 내 이웃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나는 말했죠, “복의 정령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서 “동의 정령을 축복합니다.” 이어서 남과 서의 정령들에게 축복을 한 후, 나는 돌아서서 내 손을 높이 들고 말했죠.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곤 그 일을 잊었지요. 그 날 오후, 나는 고속도로에서 북쪽을 향해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는 어떤 에너지가 확 느껴지더군요. 갑자기 어딘가로부터 굉장한 에너지를 받은 거죠. 난 그저 운전 중이었어요. 기도 중인 것도 아니었죠.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랬더니 “너의 기도가 되돌아 온거야”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에 했던 내 기도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내게 다시 온 것이죠. 그 때가 오후 한 시였어요.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단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의 사진 앞에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 예를 들어, 지금 독일에 있는 스테판의 어머니를 향해 축복하면, 짹! 하며 기도가 갑니다. 이것이 바로 단체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기도의 힘이죠. 조아나, 고마워요.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휘초족 인디언들에 대해 말해주어서요. 그들의 전통에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질문자(마이클):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어서 고마워요. 저는 당신과 세인트 저메인의 관계가 궁금하네요. 샬스타: 세인트 저메인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여기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그분의 에테르체 모습입니다. 그는 때마다 모습을 달리 하여 나타납니다. 이미 말했지만, 그는 내게 육화한 상태로 몇 번 나타났지요. 저는 그를, 말하자면, 큰 형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존재들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들을 경외감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유머 감각이 대단해요. 저와 세인트 저메인과의 경험을 돌아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농담꾼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책에서 했어요. 는 제 자서전 제목이에요. 그 책에 저와 세인트 저메인 이야기가 나와요. 음.. 그런데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에게 끌리는 존재와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요. 세인트 저메인은 내 눈 앞에서 갑자기 육화되어 모습을 나타낸 이후 내겐 주옥 스승이었죠. 뤼어(Muir) 숲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곤 나를 펄 선생님한테로 인도했죠. 저는 그를 아주 자주 느낍니다. 그렇다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 그가 대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가운데에 대답을 찾게끔 하지요.

왜냐하면 마스터의 발치에 앉아있다고 해서 마스터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스터가 되려면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직관, 사랑, 지혜, 힘으로 무장한 채 말입니다. 질문에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클. 질문자: 네,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더 알고 싶으면, 그 책을 읽어야겠네요. 물론 저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는다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샤스타: 제 자서전은 두 권으로 되있어요. 첫권이 SERCH FORTHE GURU 이며, 또 한권이 마스터의 제자입니다. 나는 세인트 저메인이 나를 산 위로 데려가서 상승시켜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대신 그는 나를 부동산일로 뛰어들게 했죠. 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더군요. 몇 년을 그 일을 했어요. 결국, 마스터가 되는 수업은 일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다른 중요한 수업이죠. 구도자들은 모든 세속적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산이나 동굴로 들어가 수행하길 원하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죠. 그러나 정말 마스터가 되고 싶으면, 동굴 수행에서 얻은 평정심과 평화로움을 일상의 관계에서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질문자(마이클): 네, 맞아요. 정말 멋진 충고네요.

샤스타: 이사회같은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클: 네,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사회에서 우린 결정을 내려야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가장 사랑과 자비가 깃든 결정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고요. 그건 이사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질문이죠.

(샤스타 웃음~)샤스타: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마이클: 다들 잠잠해졌어요. 다른 시각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여러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의 참석자들이 그렇게 해서 전 행복했죠.

샤스타: 제가 한동안 같이 공부했던 티벳 스님이 계셔요. 그 분이 골드만삭스 이사회로부터 강연을 초청받았어요. 그는 초청을 수락했죠. 거기 가서 얼마나 오래 강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님의 문하생 중 몇몇은 스님을 비판했어요. “아니 거대한 오징어에 강연을 간다구요?” 그건 골드만 삭스의 별명이에요. 어떻게 그런 나쁜 기업에 가서 강연하느냐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겪는 경제적 문제의 뿌리가 그런 기업에 있다고 보는 거죠. 스님은 그들이야말로 설법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죠. 왜냐면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없죠. 질문자(크리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저는 정말 지구의 미래가 걱정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길을 추구하고, 영적 스승으로부터 다양한 지혜를 얻지만, 막상 그들은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구의 생태적 붕괴와 여러 분쟁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요. 샤프스타: 그래요, 음..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나네요. 막달라 마리아가 비싼 향료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을 때, 제자들이 그녀를 비난했어요. “그렇게 비싼 향료를 사용하다니,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하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나는 곧 너희를 떠나게 된다. 막달라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니, 그녀를 비난하지 말라고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앞으로도 지구상의 오염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러나 당신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당신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당신의 모든 의식이 오염에만 집중되어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당신 혼자 힘으로 지구 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인류의 십 분지 일이 관여한다해도요. 오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이 세속적 세상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오염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제 밤에 목욕을 한 후, 목욕물을 버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는 이 곳이 반-사막의 땅인데, 정말 물을 낭비하는군 한번 쓴 물이지만 그 물을 앞 뜰에 잔디에 줄 수도 있는데 말이지, 그냥 하수구로 빠져나가다니 얼마나 낭비인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쓴 물을 잔디밭에 주는 물로 재활용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도 있을 거야. 샤프스타 산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빙하물을 잔디밭에 뿌리는 것은 낭비지.’ 크리스, 이처럼 저도 지구환경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아침 이 강론을 하는 대신 내가 그 일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저는 그 일보다는 여러분과의 이 모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당신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바래요. 그렇다고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어요. 걱정을 하자면 끝도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걱정과 불안으로 화가 나 있죠. 거의 제 정신이 아니죠. 저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지금 우리에게서 내면의 신을 찾는 대단한 기회가 왔어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생태적 행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크리스.

크리스: 매년 삼만 오천에서 오만 정도의 생물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백년 안에 지구가 거의 다 망가질 겁니다.

샤프스타: 백만년이 지나면 지구가 별로 남아있지 않을걸요. 아마 블랙홀에 다 빨려들어 없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존재로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염된 지구는 상승하거나 빛 속에서 용해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주파수로 존재할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신 혼자서 이 세상의 괴로움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심지어 모든 영적 스승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도 모든 악을 뿌리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괴로움을 뿌리 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지구 상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세상의 괴로움을 이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때로 증폭된 인류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뉴스를 틀고 증폭된 고통과 괴로움에 속하기 보다 그로부터 고개를 돌리세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난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 나는 오늘 선함을 창조할 거야. 나는 인류에게 사랑을 보내겠어. 최소한 산스크리트 찬송이나 기도를 하겠어. 최소한 내 세계와 내 주변을 향해 나는 고통을 없애고 선함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마하라시 마헤시 요기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디씨의 호텔을 빌려, 아마 한달 정도 그의 문하생들에게 명상을 하도록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씩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한 달 동안 그곳의 범죄율이 떨어졌다고 해요. 비슷한 기록은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를 했어요. 환자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받는다는 것을 몰랐지만 그들은 빠르게 회복했다고 해요.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요. 우리는 병원 주위에 앉아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선함을 느낍니다. 사실 구지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의식으로 병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밤에 저는 한 친구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0 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병원이죠. 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를 그에게 보냈어요. 저는 기도가 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질문자: 저는 I AM 현존 그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선생님 뒤에 그림이 있네요, 신과 인간 중간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셨고 또 우리들의 창조능력에 기인한 자아 탐구에 대해서도 말하셨는데 저는 어쩐지 사도 신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하느님과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러한 예수 개념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자아라는 것을 가르키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스도와 나의 결합이죠. 샤페타: 맞아요. 멋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언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소개할꺼냐고 묻자, 예수는 그게 아니고, 하느님은 여기 우리 안에 있다고 했죠. 여기 I Am 현존의 다른 그림이 있어요. 잘 보이나요? 둥그란 빛의 고리가 보이지요? 이 그림은 하위 자아 또한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마리우스 마이클 조지의 작품입니다. 그의 웹 사이트(mariusfineart.com)가 있어요. 여성이 등장하는 또 다른 그림도 있어요. 가운을 입고 서있는 모습이죠. 그 위에 상위 자아가 있어요. 마침 애니카가 그 그림을 보여주네요. 하위 자아가 여성인 그림입니다.

질문자: 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샤스타: 저번 시간에 내가 말을 했던 것 같지 않은데, 하여간 나는 실제로 신적 자아를 두 번이나 봤어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내 생애 통털어 가장 강력한 경험이었죠. 한 밤중에 깨어났는데 위에 빛의 구체가 있더군요. 저는 누구냐고 물었고 그것은 '내가 바로 너다. 너의 신적 자아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기절했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상위 자아에 대한 예술가들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높은 진동수의 빛의 구가 우리 위에 존재합니다. 저는 두달 된 아기가 침대에서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기들을 들여다 볼 때, 아기들은 우리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저 위를 보고 있죠. 아기들이 무엇인가 볼 때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제 생각엔 그들이 수호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질문자: 맞아요. 우리 집에 신생아들이 있어요. 저도 바로 그런 것을 보았어요. 아기들은 더 없이 행복한 천상의 표정을 짓는데,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머리 위 어딘가를 보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샤스타: 예수도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

질문자: 아기들이 여전히 천국의 빛을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샤스타: 맞아요. 감사합니다.